

☐ 홈 > 뉴스 > 해운 > 외항

## 최신 컨테이너 기술 세미나 11일 개최

[0호] 2009년 12월 02일 (수) 14:02:00

취재부

컨테이너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컨테이너 최신 기술세미나가 11일 개최된다.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오너들의 비영리 협의체인 COA(Container Owners Association)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회 COA 한국 회의(2nd COA Korea Regional Branch Meeting)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첫 번째 COA 한국 회의를 열어 컨테이너와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을 전달해 많은 국적선사 관계자들과 컨테이너 리스 및 수리업 관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COA는 이번에 더욱 풍부한 내용로 준비가 됐다.

COA 한국대표를 맡고 있는 박스조인의 전병진 상무는 "올해는 COA회장을 맡고 있는 Triton Container의 Brian Darnowki부사장과 COA 사무국의 Patrick Hicks 국장 등이 참여해 최근 도입된 CIC제도와 Flexitan Code 등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외에도 ACEP, E-seal & RFID, Savi Trak 시스템 등 컨테이너 수리 및 관리유지와 관련된 최신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COA는 유럽선사와 컨테이너 임대사들을 주축으로 컨테이너 사양과 보수관리의 표준화 작업, 국제 로비활동, 전세계 전문지식 제공, 회원사들과 해운산업단체들간의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지난 2004년 11월 설립된 비영리 국제 단체다.

COA는 현재 컨테이너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선사, 임대사 등 정회원이 50개사, 컨테이너 제조, 부품업체 등 준회원이 87개사, 그룹회원사 1개사 등 총 138개사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국내에는 한실흥산을 비롯해 한진해운, 현대상선, 수프랙 등 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으며 호주와 더불어 유일하게 지점이 설립돼 있다.

### <2nd COA Korea Regional Branch Meeting 개요>

△일시 : 2009년 12월 11일 금요일 9시~18시

△장소 :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주요발표 내용

-Patrick Hicks국장(COA 사무국) : COA 소개 및 향후 계획

-Brian Darnowski회장(Triton Container 부사장) : 반납컨테이너의 국제표전 검사/수리기준 (CICdhk IIICL-5 수리비 비교 결과)

-이수형 과장(박스조인) : 플렉시 탱크란? -Patrick Hicks국장 : Flexitank Code of Practice 재정

## 및 시행안내

- 석창부 상무(코리아컴퓨터서비스) : E-seal&RFID 최근 발전 동향
- 곽창훈 책임연구원(동아대 컨테이너화물안전수송기술개발클러스터 사업단) : 새로운 패러다임, 지능형 컨테이너란?
- 박승택 과장(PNL Networks) : Savi Trak 시스템 개발 현황
- Brian Darnowski회장 : 대체 개발품 '바닥제 및 도장' 동향
- 박나영 과장(박스조인) : 컨테이너 장비교환
- 정무연 부장(한진해운) : 컨테이너안전관리제도(ACEP) 국내 현안 문제 논의
- 전병진 상무(박스조인) : 슬라이딩 오픈 탑 컨테이너 개발 현황

© 한국해운신문(<http://www.maritime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